

하늘사랑

2017. July

7

www.kma.go.kr Vol. 433

정책 클로즈업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열린마당

극지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공감토크쇼

날씨+Story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가정에서 예방하기!

"국민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행정심판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하세요!



신속 · 공정한 권리구제

온라인행정심판

www.simpan.go.kr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

- 각종 인·허가 및 면허·자격 관련 처분
- 영업정지·과징금·부담금 등 부과 처분
- 정보공개 거부 처분
- 학교폭력 재심결정
-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등

전화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국민권익위원회

하늘사랑

2017 July Vol. 433

2017년 7월호(통권 433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0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7년 7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고윤화 편집장 정해정 편집기획 대변인실 최의수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정책 클로즈업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 02

서울과 부산 관측소,

WMO 100년 관측소로 선정되다! · 04

포커스

책임운영기관, 그것이 알고 싶다! · 06

해외동향

미국, 기후변화로 인한 수면 부족 연구 외 · 08

KMA About

열린마당

사랑타구회, 진땀 나는 중앙행정기관 대회 도전기 · 10

향기 가득한 취미생활 · 12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UN의 도시 본에 다녀오다! · 14

나누는 손길, 더하는 행복 · 16

극지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공감토크쇼 · 18

KMA 날씨 +

날씨 + Story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가정에서 예방하기! · 20

날씨 + Book 눈먼 자들의 도시 · 22

날씨 + Travel 제주 스나이들의 부산 탐방기 · 24

날씨 + 에세이 SF와 애니메이션 · 26

KMA Report

포토 브리핑 · 28

독자 마당 · 30

포토 에세이 · 32



7 July



1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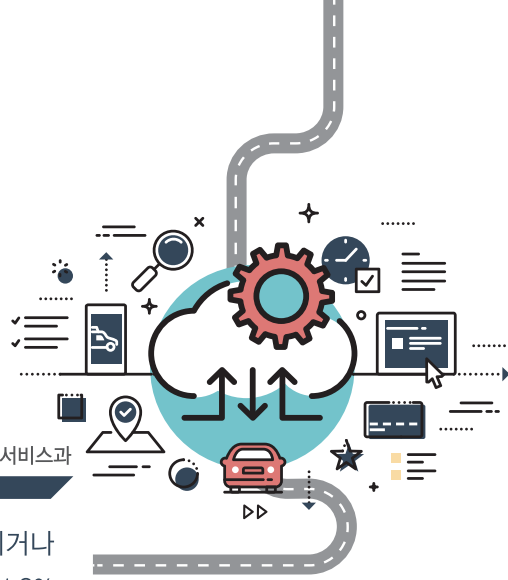
25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내가 달리고 있는 도로의 날씨를 알 수 있어요!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융합서비스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도로침수로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빗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재산피해만이 아니라 연간 GDP의 1.8%에 달하는 약 28조 5,744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마저 위협하는 사회적인 문제다.

차량용 강우센서를 개발하다

기상청은 전국에 조밀하게 구축되어있는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레이더, 위성 등을 통해 전국의 날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의 관측장비로는 도로 위의 강우량을 정확히 관측하고 도로 경로별 강우 정보를 서비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로의 강우량을 효율적으로 관측하고, 그 정보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였고, 강원대학교 김병식 교수 연구팀에서 차량용 강우센서를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강우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였다.

이 기술은 기존에 차량의 와이퍼를 작동시키는 '자동와이퍼(Auto-wiper)' 기능을 개선한 강우센서를 통해 강우를 관측하고, 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와 텔레매틱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텔레매틱스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인포매틱스(Informatics)의 합성어로 자동차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기술

차량용 강우센서의 원리

강우센서는 센서에서 광신호를 보내는 송광부(Sender)와 차량의 전면유리창에 반사되는 광신호를 받는 수광부(Receiver)의 광신호 반사율을 이용하여 강우량을 산정한다. 기존의 자동와이퍼 기능에 장착된 차량용 강우센서에서 강우의 검지면적과 처리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강원대학교의 실험차량과 기상청 재해기상연구센터의 모바일관측차량에도 강우센서를 부착하여 시험운행을 통해 도로의 강우를 관측하였으며, 이렇게 생산된 강우 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웹기능을 이용해 표출하는 기술까지 구현하였다.

강우센서





바람과 차량 속도별 강수량 산정 실험

서버

실시간 도로 강우정보 표출 시스템

이 기술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의 일환인 '빗길 안전운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부산광역시 2개 노선, 20대 시내버스에 시범 적용되어, 현재 도로의 빗길 주의구간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강우정보를 단계(강·중·약)로만 구분하고, 일부 시험차량에 부착하여 한정적으로 시범운영되는 정도이다. 도로별로 강우 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측하여 전국단위의 도로 경로별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많은 강우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강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유량조사사업단"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의 도로 강우를 관측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과 도로 강우 정보 생산 기술

요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화두인 것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보통 '인공지능(AI),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는데, '도로 강우 정보 생산·제공' 기술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려 첨단 자동차 센서기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거대 자료) 등 미래 핵심기술 간 융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도로에서는 강우 외에도 안개, 수막, 결빙 등의 현상도 아주 중요한 기상정보이다.

도로에서는 강우 외에도 안개, 수막, 결빙 등의 현상도 아주 중요한 기상정보이다. 이번 기술과 같이 차량용 강우센서뿐만 아니라 안개센서, 노면상태 검지센서 등 다양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차량용 센서 기술들이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도로 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게 된다면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의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관광·물류·운송 등 다양한 교통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서울과 부산 관측소, WMO 100년 관측소로 선정되다!



지난 6월 15일, 서울 관측소와 부산 관측소가 세계기상기구(WMO)가 선정한 '100년 관측소 (Centennial Observing Stations)'로 선정되었다. '100년 관측소'는 장기간의 기후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WMO가 설립한 기구다. 전 세계 기상관측소는 13,000여 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60개소가 100년 관측소로 선정되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중국 3개소, 일본 1개소)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0년 관측소를 보유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기록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 의하면 BC. 53년 신라에서 용오름현 상을 관측한 것이 시초로 되어 있다. 그 후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등에서도 각종 기상현상 관측 및 관천망기법(觀天望氣法)에 의한 날씨 예성 등의 기상업무가 계속 이어져 왔다. 특히 조선시대 와서는 풍신기와 측우기를 발명하여 정확한 풍향과 강수량을 관측하는 등 발전을 해왔다.

그 후 1904년 3월 5일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등 5개소에 임시관측소가 설치되고, 그 후 성진과 진남포에도 추가로 임시관측소가 설치되어 7개의 관측소가 차례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기상업무는 급속도로 근대화되어 관측의 연속성, 업무의 일관성을 갖고 기압계, 우량계 등의 측기로 정량적·과학적기법에 의한 전국적인 관측망 구축과 현재와 비슷한 정규 관측자료를 생산하게 되었으며, 1907년 2월 1일 평양, 대구, 경성(서울)에 추가로 관측소가 설치되었다.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 문화재 '100년 관측소'

세계기상기구는 백 년간 관측한 지점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기후 연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장기 관측 자료의 유지 필요성과 100년 이상 관측이 이루어진 기상관측소의 중요성 인식하여 '100년 관측소'를 선정한다. '100년 관측소'의 기준은 100년 전 설립, 비활동 기간 10년 미만 환경정보의 보존, 지속적인 자료품질관리, 관측자료 공개 등 세계기상기구(WMO)의 촘촘한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경우만 선정되는 것으로, 기상 분야의 유네스코(UNESCO)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서울·부산 관측소의 100년 관측소의 선정은 우리나라 기상업무의 안정성, 신뢰성을 전 세계에서 인정 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균질한 고품질 관측 자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상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WMO의 100년 관측소 홍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1PPrRbNuS8>

서울·부산 관측소 연혁

1900~1920		최근	
서울	1907. 10. 1	설립	한국경성측후소로 설립(이왕가 박물관 내) 서울시 동부 동서 연방 마두산 (대한의원 부지내)
	1913. 1. 14	이전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 (전 대빈궁지내 파고다공원 뒤)
	1933. 1. 1	"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
	1953. 11.	본대이전	국립중앙관상대가 인천에서 이전

1900~1920		최근	
부산	1904. 3. 7	설립	일본 중앙기상대 제 1임시관측소 설립
	1904. 4. 9	관측개시	부산시 서정 3정목 31. 민가
	1904. 7. 1	이전	부산시 보수정 번외 1. 민가
	1906. 1. 1	"	부산시 보수정 2 정목40. 신청사
	1934. 1. 1	"	부산시 중구 대청동 1가 9

'100년 관측소'로 선정된 관측소 목록

지역	국가명	관측소 명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Cape Agulhas
		Cedara
		Roodebloem
아시아, 중동	중국	Changchun
		Yingkou
		Hohot
	홍콩	Hong Kong Observatory
	일본	Ishigakijima
	키르기즈스탄	Naryn
		Baitik
대한민국	Seoul	
	Busan	
남미	칠레	Quinta Normal
북미	미국	Blue Hill
		Mandan
오세아니아	호주	Olga
		Hobart
		Mt Boninyong
	뉴질랜드	Yamba
		Hokitika
	Lincoln Broadfield	
유럽	아르메니아	Gyumri
		Gavar
	오스트리아	Armavir
		Wien-Hohe Warte
		Kremsmünster
	크로아티아	Sonnblick
Gospic		
	Hvar	

지역	국가명	관측소 명
유럽	키프러스	Lefkosia
		Polis Chrysochous
		Stavros Psokas
	체코	Opava
	에스토니아	Viisandi
	핀란드	Parainen Utö
		Siikajoki Revonlahti
		Sodankylä
	프랑스	Besancon
		Mont-Aigoual
Paris-Montsouris		
독일	Brocken	
	Potsdam	
	Hohenpeissenberg	
그리스	Asteroskopeio	
아일랜드	Valentina Observatory	
네델란드	De Bilt	
로마니아	Drobeta Turnu Severin	
	Calarasi	
스페인	Izana	
	Tortosa Observatory	
	Daroca	
스웨덴	Madrid Retiro	
	Stockholm	
	Bjuröklubb	
	Hoburg	
스위스	Col du Grand-St-Bernard	
	Säntis	
영국	Rothamstedt	
	Balmoral	
	Eskdalemuir	

책임운영기관, 그것이 알고 싶다!

항공기상청

영화나 드라마 혹은 정치권에서 뭔가 잘못을 한 상대방에게 ‘책임지라.’는 말을 자주 한다. 책임(責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制裁)’라 되어 있다. 그럼 책임운영기관은 무엇을 책임진다는 말일까? 그리고 나랏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이 원래 책임성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면 지금부터 책임운영기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책임운영기관이란?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책임운영기관의 방식


책임운영기관이라는 방식은 언제 시작되었을까? 1988년 영국의 대처 전 총리가 정부개혁을 하면서 집행기관(Executive Agency)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이후 효율적 성과관리가 가능한 집행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의 경영 기법을 행정과 접목시킨 새로운 행정관리 방식으로 도입하였다. 2017년 현재 22개 부처의 50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기관의 사무 성격에 따라 조사 및 품질관리형, 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차이

책임운영기관과 일반 행정기관과는 무엇이 다를까?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이고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보통 행정기관과 같다. 다만, 기관 운영을 하는 데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책임운영기관장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여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정부는 1년 단위로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후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일반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으로 관리 인력증원 범위 : 3%(총액인건비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제시행규칙 및 기본운영규정으로 관리 ▶ 신속한 개정 가능 인력증원 범위: 5%(총액인건비 내)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 경력직 공무원 장관이 소속직원 인사권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장: 임기제(개방형) 공무원 *임기 보장: 원칙 3년, 최대 8년 책임운영기관장에 장관 인사권* 위임 *채용, 승진, 전보, 성과평가 등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수입 재사용 금지 원칙적 전용 금지 기탁물품 접수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수입 직·간접비용 사용 가능 세출 총액한도 내 과목간 자체전용 가능 기탁물품 접수 가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업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고유사업(고객만족도 포함) + 관리역량

기상청의 책임운영기관

항공기상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이고, 조사 및 품질관리형 기관으로 항공기의 안전과 경제적 운항을 위한 기상 정보의 수집·생산·제공에 관한 사항을 직무로 한다. 기상청의 또 다른 책임 운영기관으로 연구형 기관인 국립기상과학원이 올해부터 기상·기후와 지구시스템 분야에 대한 관측·분석·예측·응용기술 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직무로 운영되고 있다. 

개념 확인 문제

(문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울시 2013.9.7. 시행)

- ①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능 중심의 조직이다.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성격은 정부기관이며 구성원은 공무원이다.
- ③ 책임운영기관은 융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킬 수 있다.
- ④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강하고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팽창의 은폐수단 혹은 민영화의 회피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정답은 ④번

책임운영기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가 어려운 분야에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지니어, 박문각
<http://contentswa.tistory.com/10> [contentswa], 인천자치문화연구소



AMERICA

미국, 기후변화로 인한 수면 부족 연구



수면은 인간의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다. 수면이 너무 적으면 질병과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심리적인 안정성에서도 악영향을 끼친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샌디에이고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수면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비정상적으로 기온이 높은 밤과 수면 간의 관계성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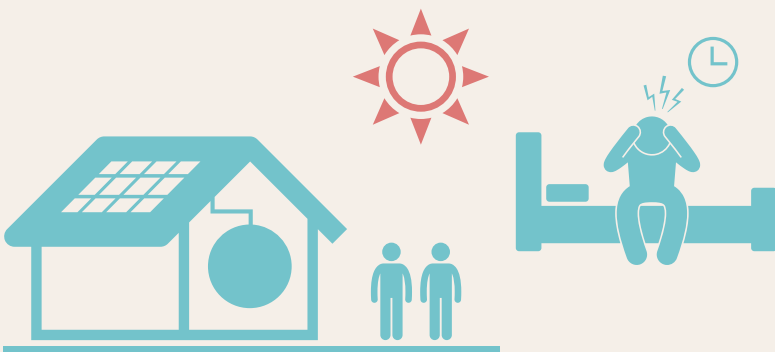
2002년과 2011년 사이에 765,000명의 미국 거주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점점 더 높아지는 대기 온도가 수면을 방해하고 기후변화가 빨라질수록 이런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간 기온이 1°C가 증가했을 때 한 달 동안에 100명당 3일간의 수면 부족이 발생했다.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은 여름밤에 발생했다. 여름철은 다른 계절보다 거의 3배 더 높은 수면 부족이 발생했다.

이런 효과는 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가장 심각하게 발생했다. 노인의 경우에 젊은 성인에 비해서 2배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 재정적으로 유리한 사람들보다 3배 더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다. 정상 기온보다 더 높은 밤은 인간의 수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과 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2050년에는 수면 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밤이 많아질 것이다.

출처: Medicalxpress



미국, 마른 공기에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기 개발

미래에는 모든 가정마다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추출해 내는 전자 제품이 한 대씩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제품은 공기의 습도가 낮은 사막 기후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전원은 태양에서 얻으면 된다. 하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일은 아닌 것 같다. 미국 과학자들이 공기 중 수분을 수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기를 이용하면 습도가 20% 미만인 조건에서도 수 리터의 물을 얻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연구진은 건조한 기후 또는 사막 기후에서 단지 태양광으로 물을 생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속 유기 구조체(MOF: Metal-Organic Framework)로 만들어진 이 장치는 20% 이하의 습도를 가진 건조한 지역에서도 공기 중의 습기를 추출할 수 있다.

연구진은 20~30%의 습도 아래에서 1kg의 MOF를 사용하면 12시간 간격으로 2.8ℓ의 물을 뽑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실제 상황에서 제작된 기계가 잘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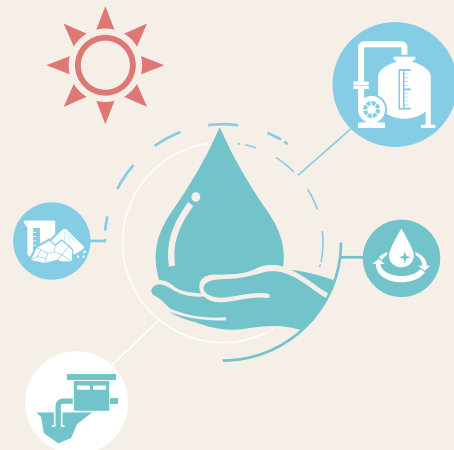
2014년도에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지르코늄 금속과 아디픽산을 조합해서 만든 MOF가 수증기와 결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MOF로 물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시스템을 공기 중에 놓으면 다공성 MOF를 통해 주위의 공기들이 흘러들어오고, 물은 내부의 표면에 결합하게 된다. X선 결정 연구에 의하면 물 수증기 분자들은 8개가 그룹으로 모여서 큐브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였다.

태양 빛이 창을 통해 들어보면 MOF를 가열시키면서 결합된 물을 응축기로 향하게 한다. 수증기 응축기에서 액체 물로 바뀌면서 수집기에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향상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현재의 MOF는 물 무게의 약 20%만을 흡수할 수 있지만, 다른 MOF 재료는 40%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재료는 보다 좋은 효율로 보다 낮은 습도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미세 조정할 수 있다. 현재 수천 종의 MOF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 수확하는 양을 높일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연구팀은 현재 MOF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팀은 밤에도 습도를 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태양 수집기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을 수확하도록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사막에서도 사용하고, 한 시간 안에 먹을 수 있는 물을 수확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주장했다.

출처: phys.org



사랑탁구회, 진땀 나는 중앙행정기관 대회 도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개인의 취향이 더욱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처럼 많은 사람이 아주 다양한 종목으로 각자의 여가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많은 종목 가운데 내가 선택한 종목은 바로 탁구다. 주변인들에게 ‘김탁구’라는 별명을 강요하고 10만분의 1에 실력자를 꿈꾸며 탁구를 배우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다 되어가지만 실력은 늘 제자리걸음인 내게 ‘기상청 사랑탁구동호회’라는 고마운 존재가 있다.

탁구의 인기와 무모한 자신감

오래전 탁구의 인기와 영광은 대단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비인기 종목으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종합경기대회에서 간간히 중계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스포츠로 인식된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체육에는 전국 규모의 오픈대회만 매년 100개가 넘게 개최되며, 각 지역 탁구연합회에 등록된 동호회의 선수는 100,000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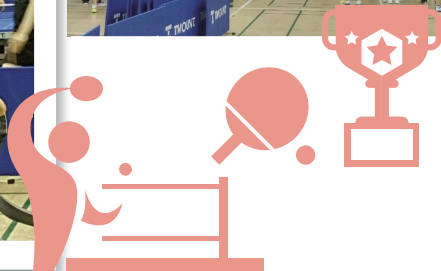
기상청에는 수십 개의 동호회가 구성되어있는데, 탁구 동호회는 테니스·축구·산악회와 더불어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단 4개의 동호회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입사와 동시에 탁구동호회에 가입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여길 만큼 탁구를 좋아하는 나에게는 많은 회원과 오랜 역사를 가진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반가우면서 다행스럽게 여겨졌다. 대학교 동아리 대표로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며 쌓은 경험치와 전(前) 국가대표 감독이 운영하는 탁구장에서 주부탁구교실 코치로 활약한 경력이 더해져 어느 동호회와 어떤 선수와 겨루어도 이길 수 있겠다는 무모한 자신감에 설레기만 한 가슴으로 ‘기상청’ 소속의 배번을 달고 출전한 첫 대회의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5년 전, 그날!

2012년 개최된 ‘제27회 중앙행정기관 탁구대회’. 연습 부족을 탓하기에는 확연히 드러나는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5년 전 그날의 기억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복식경기의 특성상 개인의 역량보다는 팀워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며, 경기 순서표(오더) 작성에 따른 운이 유난히 크게 작용하는 단체전이었기에 내심 행운의 입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직전 대회 우승팀인 통일부와의 첫 경기부터 정신없이 연전연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다음 해를 기약하며 나오면서 부끄럽거나 분하지도 않은 것이 신기했다. 그렇게 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매



김기현
항공기상청 김포공항기상대



년 하위부 본선 토너먼트 1회전 탈락이 반복되며 실력의 한계를 느끼고 연습의 의욕을 잃어가던 때, 전국에 있는 환경관서 간 시합인 '환경부장관기 탁구대회'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 연습!

2015년 환경부 시합을 위해 지방기상청에서 별도의 팀이 구성되어 참가 의사를 보인 것이었다. 처음으로 의기투합한 기상청 A, B팀은 서로 연습 상대가 되어 시합에 대비해 구슬땀을 흘렸고, 몇몇 회원은 합숙까지 하면서 시합에 의욕을 보였다. 재야의 은둔고수들이 총출동하여 심기일전한 결과는 A팀 청령부(하위부) 우승, B팀 녹색부(상위부) 4위라는 입상기록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상청 동호회는 중앙행정기관 대회에서의 입상과 상위 토너먼트 진출의 밑거름이 될 자신감을 얻었고, 다가오는 2018년 환경부장관기 시합을 직접 주관하게 되었다.

기적을 기다리며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2017년 봄, 5년 전 중앙행정기관 탁구동호인대회가 열렸던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다시 한번 같은 대회가 열렸다. 환경부장관배 입상의 주역들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최선을 다했지만 1승 5패로 7팀 가운데 6위, 그리고 본선 1회전 탈락이라는 성적으로 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시합 내내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기죽지 않고 치열한 응원전을 함께 즐기는 기상청 사랑탁구회원들의 모습은 분명 몇 년 전과 크게 달라져 있었다. 매년 쟁쟁한 선수들이 선발되어 오는 대규모 선수단에 맞서기에는 아직 경험도 실력도 부족하지만, 기상청 탁구사랑회는 내년에도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 도전할 계획이다. 열악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최상위 레벨의 국가 간 경쟁인 월드챔피언십 진출을 이뤄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처럼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될 그 날을 기다리며……. 📖



향기 가득한 취미생활

기상청에 들어와 3년 동안 예보와 관측 교대근무만 하던 나는 올해 3월에 기후서비스 과로 발령이 나면서 처음으로 주 5일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대근무를 했을 때에는 퇴근하면 8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6시에 퇴근을 하니 여가시간이 생기게 됐고, 이번 기회에 취미생활을 가져보기로 했다. 어떤 취미를 가져볼까 고민하던 차에 석고방향제를 접하게 됐고 석고방향제 만들기가 나의 취미생활이 되었다.

석고방향제?

얼마 전 친구와 프리마켓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직접 만든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석고방향제를 팔고 있었다. 친구가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가에 석고방향제를 구경하게 되었는데, 구경하다보니 향기도 너무 좋고 모양도 너무 귀여워서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란 생각이 들었다. 마침 퇴근 후 여가시간을 다채롭게 보내기 위해 고민 중이었던 나는, 석고방향제에 대해서 검색을 시작했다. 혼자서 만들기 의외로 쉽다는 말에 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두 구매했다.

석고방향제 만들기

석고방향제를 만들려면 석고, 석고 틀, 물, 그리고 향을 낼 수 있는 오일, 오일과 물을 섞을 때 필요한 올리브 리퀴드가 필요하다. 비율대로 재료를 넣고 섞어서 틀에 굳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쉬운 일은 없나 보다.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에는 쉽게 느껴졌던 방법들이 막상 만들기를 시작하니 쉽지가 않았다. 처음 석고방향제를 만들었을 때에는 틀에서 꺼내자마자 기포때문에 석고에 구멍이 나 있었고, 틀에서 급하게 꺼내다가 석고가 부러지기도 했다. 또, 석고에 넣었던 오일과 물이 제대로 섞이지 않아 석고에 얼룩이 지기도 했다.



김경희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쉬워 보였던 석고방향제 만드는 일에도 요령이 필요했다. 기포가 생기지 않게 기포제거제를 뿌려주고, 석고 틀을 바닥에 탁탁 쳐줘야 하며, 재료를 섞을 때는 오일과 물이 잘 섞일 수 있게 충분히 저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은 뒤, 제대로 된 석고방향제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석고를 잘 굳혀 꺼낸 뒤 2~3일 정도 더 굳혀주면 단단한 석고방향제가 되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한 뒤 말려주면 완성된다. 채색하는 것도 물론 쉽지가 않았다. 작은 석고에 채색하는데 왜 그리도 손이 떨리던지 뼈뼉뼉 채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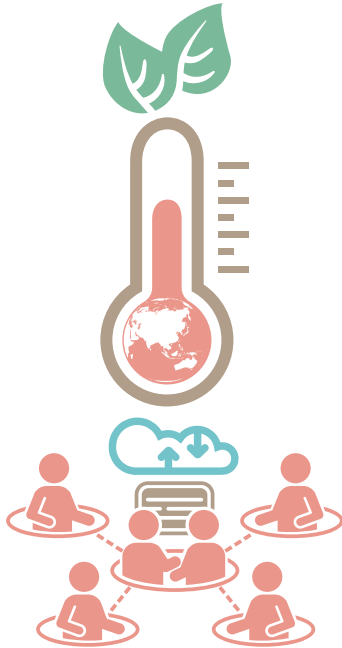
향기를 나누는 기쁨

이제는 석고방향제 만드는 일이 손에 익어가면서 나름의 요령이 생겼다. 굳어진 석고방향제를 석고 틀에서 꺼내고, 석고 하나하나에 채색을 해 방향제가 완성되는 것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일이 되었다. 그래서 퇴근 후에는 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석고방향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 석고방향제가 점점 늘어나 방 한편에 쌓이기 시작했다. 만들기만 계속하면 석고방향제가 넘쳐날 것 같아 완성된 방향제를 아빠 차에도 달아드리고, 내방에, 동생 방에, 거실에도 두었더니 온 집안이 향기로 가득 찼다. 좋은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이제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직접 만든 석고방향제를 선물하고 있다. 차로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들께는 차량용 석고방향제를 선물로 드렸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친구의 신혼집에 집들이를 갈 때도 예쁘게 포장해 선물했다.

취미에서 나눔으로

처음에는 나 혼자 즐기 위해 취미생활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쩌다보니 주변사람들에게 선물하면서 나의 취미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혼자서 만드는 즐거움보다는 내가 만든 석고방향제를 누군가에게 선물함으로써 받는 사람들이 좋은 향기를 맡고 기뻐해 주는 것이 더 즐겁고 뿌듯한 일인 것 같다. 석고방향제 만드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향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UN의 도시 본에 다녀오다!

라인 강변에 위치한 독일의 도시 '본'은 베토벤의 고향이자 예술의 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비롯하여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 WHO의 유럽센터 등, 18개 UN기관의 천여 명의 직원들이 활동하는 UN과 환경의 도시이다. 지난 5월 8일~18일, 본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나는 '본'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후로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는 매년 당사국총회와 부속기구별 협상회의가 진행된다. 올해 5월에도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파리협정특별작업반회의 등 파리협정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150여 개국에서 2,0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파리협정이행을 위한 세부실행방안 도출과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의 '연구대화'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는 과학·기술 문제에 관한 정보제공역할을 수행하며, 배출기준개선 등 가이드라인 등을 조언한다. 기상청은 SBSTA의 '과학·검토 관련 사항'이라는 의제에 포함되어 활동 중이다. SBSTA는 2006년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프로그램과 기구들이 연구발전, 과학적 발견, 개도국의 연구능력 배양 활동, 지역 기후변화 연구 네트워크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세계적 연구 흐름을 협상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대화(Research Dialogue)'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제9차 연구대화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지역기후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여러 WMO지역기후센터들의 기후예측 및 서비스, 지역기후 상세화 연구프로젝트의 연구현황, 개발도상국의 조기경보시스템 역량강화연구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IPCC 제3실무그룹의 6차보고서 준비과정, 완화이행 효율성 검증을 위한 과학적 접근,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작업, 인공위성을 이용한 GHG 모니터링 등, 완화의 이행과 평가를 위한 연구들이 소개되어, 국제적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정효정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과학이 불러올 협상력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의적이고 공통의 목표가 있으나, 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부속회의들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진 지난한 협상의 장이다. 각 의제별 결론문에 삽입되는 수식어 하나, 표현 하나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각국의 입장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수차례의 회의가 거듭되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실패하거나 협상이 연기되거나 또는 극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연출되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심각한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신기후체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각 당사국들의 고민과 노력들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기상청이 속한 SBSTA의 과학의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방법론 등이 객관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당사자국의 합의가 도출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의 역할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과학에 근거한 의제인 만큼 다른 의제와 다른 협상역량의 필요성, 그리고 기상청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UNFCCC의 궁극적 목표는 '기후변화의 대응'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후변화 연구의 발전, 실질적 성과와 국제 사회로의 기여가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우리의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미래 외교협상력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 우리나라에서 우리 기상청의 역할의 중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기회였으며, 우리의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자긍심과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세계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소통의 장이었다. 🌍





나누는 손길, 더하는 행복

기상청 단비회와 함께하는 어르신 더위나기 선풍기 나눔

UN은 2001년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며, 자원봉사의 의의를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따뜻한 사회 공동체와 민주 사회 건설”을 목표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나의 봉사활동은 이러한 숭고한 의의를 되새겨볼 겨를도 없이 “다솔 주임님, 주말에 약속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임다솔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개개발과

나누는 손길의 시작

6월 10일, 이날은 기상청 단비회에서 여름철 온열질환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선풍기를 지원 및 전달하는 봉사활동이 있었다. 작년 여름 ‘폭염 부채’ 전달 활동과 겨울철 연탄 나눔에 이어 올해도 단비회의 따뜻한 손길은 계속되었다.

봉사활동이 계획된 날 아침,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이슬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했고, 모임 장소인 백사마을 안 연탄교회에 도착하니 단비회 봉사자들의 밝은 표정마냥 하늘이 맑게 개었다. 간단하게 그간의 단비회 활동 내용과 단비회 회장님인 차장님, 부회장님인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원장님의 격려 말씀을 들은 뒤 조를 나눠 선풍기 수혜 가정으로 향했다.

흑백사진 같은 백사마을

푸른 하늘과 대조되는 낮고 먼지 쌓인 골목,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허름한 간판과 건물들. 마치 흑백사진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백사마을은 그런 곳이었다. 말 그대로 ‘달동네’. 달동네를 실제로 와 본 것은 처음이었기에 조금은 낯선 기운을 느끼고 있을 때 즈음, 노랗게 단장한 ‘비타민 목욕탕’이 눈에 들어왔다. 외벽에는 목욕탕 건설에 도움 주신 분들의 이름이 빼곡했는데 ‘기상청’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보았다. 함께 봉사를 추진했던 서울연탄은행의 신미애 국장님으로부터 작년 11월에 개장했던 비타민 목욕탕을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니, 내가 참여했던 일은 아니었지만 괜스레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다.

선풍기와 함께 전달된 시원한 웃음

비타민 목욕탕을 뒤로하고 첫 번째 가구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던 집이었는데 왜 이제야 왔냐고, 한참 기다리셨다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셨다. 선풍기를 설치한 뒤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자 한글을 모르신다며 좀 더 천천히 알려 달라 하시던 할머니.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해 드리고 직접 사용해보실 기회를 드렸다. ‘딸깍-’하는 버튼 소리와 함께 선선한 바람이 불자 할머니의 자글한 눈가 주름살 위로 말간 웃음이 어린다.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며, 얼마 전 경품으로 받으셨다는 믹스커피를 여러 봉 꺼내시더니 이내 커피를 한 잔씩 내어오셨다. 감사히 받



아들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훌쩍거릴 때 “이제 다음 가정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 홀로 남겨지실 할머니 못지않게 방을 나서는 나에게도 아쉬움이 남았다.

이어 다음 가정에도 순차적으로 선봉기를 전달해드렸다. 요양 보호사분과 담소를 나누고 계셨던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할머니, 어느 단체에서 왔냐고 물어보셔서 “기상청, 날씨 알려주는 곳이에요.”라고 말씀드리자 “아아- 하늘?”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던 할아버지, 올해 남편분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며 외로우셨는데 우리가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시던 할머니, 냉장고에서 두유를 잔뜩 꺼내 오시더니 고마워서 이거라도 드려야겠다고 하시던 할머니. 이 모든 분들께서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다.

봉사와 함께 나누는 손길, 더하는 행복

정식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지라 사실은 기상청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기상청 내에 봉사 동아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토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 기상청에서 일하게 됨에 대한 감격도 채 가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내가 속한 이 조직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에 몸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더욱 뿌듯해졌다.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이정미 주임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운 토요일이었다. 📖



극지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공감토크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를 꼽으라면 단연 ‘기후변화’ 일 것이다.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조짐들은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닌, 현재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임을 인지해야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도권기상청은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한 끝에 초등학교생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공감토크쇼’를 개최했다.

영화로 바라본 기후변화 이야기

여러 고민 끝에 수도권기상청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친숙한 콘텐츠(영화, 다큐멘터리 등)와 결합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았다. 이러한 취지로 처음 진행된 것이 ‘영화로 바라본 기후변화 이야기’이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영화 ‘인터스텔라’와 MBC 다큐멘터리 ‘기후의 반란’을 통해 기후변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았다. 그 반응은 뜨겁다 못해 지난해 여름철마냥 후끈(?)했다. 그렇게 시작된 기후변화 공감토크쇼는 매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에는 ‘다큐멘터리로 배우는 기후변화 이야기’란 타이틀로 눈물 시리즈 제작자로 유명한 MBC 김진만 PD를 초청해 인천 송도 트라이볼에서 3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토크쇼를 개최했다. 그뿐만 아니라 권원태 한국기후변화 학회장도 함께하여 재미와 유익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소통하다

강사 혹은 패널들의 일방적인 강연에 그친다면 토크쇼라고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전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질문을 받으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했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청중이 아니라,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관객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친숙한 콘텐츠 또는 출연진은 관객들의 관심과 몰입도를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2017년도에는 영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상·하반기 2번에 걸쳐 기후변화 공감토크쇼를 개최한다. 지난 6월 11일 ‘극지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이야기’ 공감토크쇼가 작년과 같은 장소에서 성황



정태영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는 인천광역시, 극지연구소와 함께하여 더욱 알차게 꾸밀 수 있었다.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대장님과 이원상(극지연구소) 단장님을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 진행했다. 올해는 수도권 지역기후변화 홍보단 ‘산돌림’ 단원들의 참여도가 유독 높았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13명이 지원하여 행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 했다.

다채로운 기후변화 공감 토크쇼!

멀게만 느껴졌던 남극과 북극 그리고 히말라야의 이야기가 화려한 영상과 다채로운 사진을 통해 보다 생동감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남극세종기지에 월동대원으로 파견근무 중인 송수환 주무관님과의 전화연결은 그 재미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 글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올해 역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관객들의 참여도를 한껏 끌어올리며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극지 사진전시회, 포토존 설치,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로 다채로운 즐거움을 드리려 노력했다.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난 후 돌아켜보니,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네팔에서 산사태로 고통받는 아이들, 극지방의 환경 변화로 생존을 위협받는 동물들. 무분별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동물과 자연이 고통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

두 번째 기후변화 공감토크쇼는 9월 고양시와 함께 일산아람누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벌써부터 기대되는 건 나뿐만이 아닌 것 같다. 일찌감치 행사 날짜와 장소를 물어오는 시민들이 있는걸 보면 말이다. 수도권기상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산돌림 봉사단



극지 사진전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 가정에서 예방하기!

최근 5년간(2012~2016) 식중독 환자의 약 40%가 여름철(6~9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더워질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는 질병, 식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 대표 질병 식중독, 어떤 질병인가요?

식중독이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급성 또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문자 그대로 음식(食) 안(中) 독(毒)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은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식중독균에 오염되거나 안전하지 못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리고 사람 간의 전염을 통해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균으로는 계란, 식육류와 그 가공품에 존재하는 살모넬라균, 여름철 연안에서 채취한 어패류 및 생선회를 통해 감염되는 장염비브리오균, 환자나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식중독, 가정에서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 소독 또는 살균 시설이 없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식품의 구입, 보관, 조리과 도구의 세척 과정으로 나누어 식중독 예방법을 알아보시다.

① 식품 구입 시

- 식품 구입 시 적정온도에 잘 보관된 것인지 확인하기
- 식품 표시 사항 명확한 것 구입하기(제조사, 원산지, 원재료명, 유통기한 확인)
- 찌그러진 캔, 포장이 파손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기

② 식품 보관 요령

- 조리한 식품은 충분히 식힌 다음, 덮개를 덮어 보관
- 냉장식품은 0~5℃, 냉동식품은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
- 냉장고 앞에 식품별로 구매 시기, 보관 기간 등을 작성하기

③ 음식 조리 시

-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 씻기



윤진희
기상청 블로그 기자단



- 채소나 과일은 세정제와 함께 흐르는 물에 씻어 이물질과 잔류농약 등을 제거
- 한 종류의 칼과 도마를 이용할 때는 채소류 → 육류 → 어류 → 가금류 순으로 각각 세척 후 사용한다.
- 식품 가열 시 내부까지 충분히 익었는지 확인하기
- 조리 완료된 식품은 위생 장갑 등을 착용 후 만지기

4 세척과 소독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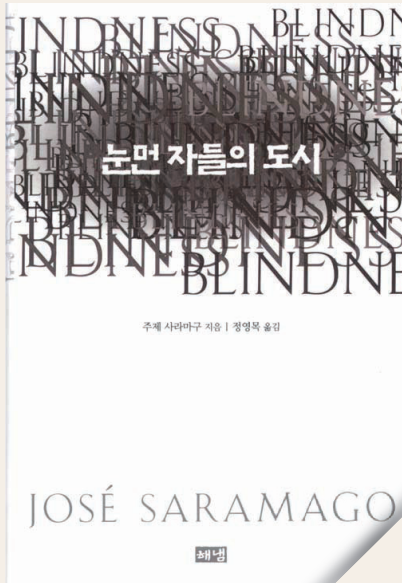
- 그릇과 조리도구는 사용 후 즉시 설거지
- 음식을 처리할 때 사용한 용기와 장갑은 반드시 세척 및 소독하기
- 세척과 소독을 마친 조리도구, 고무장갑, 수세미 등은 건조 후 보관

매일 사용하는 주방식기, 어떻게 관리할까요?

주방도구	소독 및 살균법
칼	레몬, 소독과 향균 효과
도마	도마의 열룩은 굵은 소금, 냄새가 날 때는 레몬
행주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의 세균이 쉽게 퍼지는 젖은 행주는 끓는 물에 10분 이상 삶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8분 이상 살균
수세미	식초를 1대 1비율로 섞은 물에 하루 동안 담가 놓은 후 햇볕에 건조, 또는, 전자레인지에 2분 이상 살균
나무주걱	일주일에 한 번, 찬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 살균
술가락 젓가락	식초를 몇 방울 넣은 물에 삶아 살균

식중독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방법, 기상청 식중독지수 체크!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지수는 최근 5년(2010~2014) 동안의 세균성,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유무를 기반으로 기상에 따른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지역의 식중독 지수를 체크해보세요!



눈먼 자들의 도시

저자 사라마구 | 정영목 역 | 해냄출판사

살면서 건강 하나는 자신 있었던 나에게도 어느 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있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 누워서 약물이 투입되자마자, 정신이 아득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새하얀 어떤 세계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영화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표현하는 영상 기법처럼. 깨어나니 두 시간 반이 지나있었다.

먹고, 자고, 걷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휴식 기간에 주로 책을 읽었다. 그중에 소개하고 싶은 책은, 수술대에 올랐던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다시 찾아본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다. 이 소설에서 처음 눈이 멀게 된 남자는 ‘마치 안개 속이나 우유로 가득한 바닷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딱 그 표현이 와 닿았다. 공감 가는 구절로 시작해서 단숨에 읽게 된 이 소설은 많은 생각거리를 남겨주었다.

이 소설은 대화의 호흡법이 인상적이다. 상황을 묘사하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그런 문장의 나열과 이름이 없는 등장인물들은 『눈먼 자들의 도시』의 느낌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준다. 마치 독자도 눈이 먼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작가는 눈먼 사람들, 눈먼 권력, 눈먼 현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의사의 아내’를 통해서 추악한 현실을 재조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연대의식을 찾고 인간의 본성, 존엄성, 정의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주제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이는 책이었다. 단순히 백색 실명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는 전염병에 대한 스릴러물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매력이 있었다. 이 소설 뒤에 읽게 된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 속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이유로, 눈먼 자들의 도시는 영화보다는 책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추천한다.

웁긴이의 말을 빌리자면, 백색 실명이라는 기묘한 설정은 세상이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수가 뿌려져 있기에 이를 보지도, 냄새 맡지도



신기선

수도권기상청 기후서비스과

못하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장을 덮으며 눈을 크게 뜨고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삶에 필요한 무기를 찾아야 하는데, 나는 이 책을 만나면서 사회과학과 인문학 등으로 이어지는 독서통로를 찾은 것 같다. 그 속에서 찾은 무기로 나의 주변을 이루고 있는 새하얀 세계에 대해서 이해해나갈 것이고 눈 뜬 시민으로서 나의 역할을 찾을 것이다. 또한, 그 무기는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인도 해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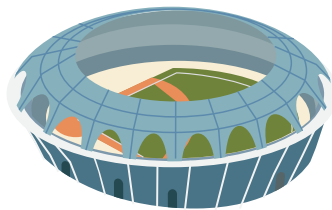
어느 날 책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순간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낌이 딱 꽂히는 책을 읽고 생각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되는 순간 말이다. 그 흐름을 쫓아서 집히는 책을 읽다 보면 흐릿하던 머릿속에 길이 만들어지고 초점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온다.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연필을 들어 밑줄 그은 문구는 흐릿하던 세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던 진리의 빛일 것이다. 밑줄 그었던 문구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삶은 눈이 멀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다.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오, 자기 자신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눈은 멀지 말아야 해요.



제주 스나이들의 부산 탐방기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 제1의 무역항, 부산 국제영화제, 야구의 도시!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놈(?)들에겐 핫플레이스임이 틀림없다. 어쩌다 보니 40대 아저씨들로만 탐방팀이 구성되어 왠지 씁쓸했지만, 굴하지 않고 짧은 일정 속에서 부산에 대해 빼곡하게 제주도에서 할 수도, 볼 수도 없던 것들을 체험했다.



김현우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부산하면 떠오르는 야구

“부산” 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 가장 부러웠던 건 바로 열정적인 야구 응원이다. 2박 3일간의 ‘소통이 있는 정책현장 탐방’을 준비 하면서 가장 기대하고 공을 들였던(?) 일정은 롯데 자이언츠의 사직구장의 홈경기! 품격 있고 역동적인 관람을 위해 사전에 예약 하는 정성까지 들이며 찾아간 탁자석은 역시나 만족이었다. 누군가 사직구장을 부산 최대의 술집이라 했는데, 정말 그러했다. 맥주보이들은 실 새 없이 움직였고, 젊은 청춘들은 한 손에 맥주를 들고 흥에 취해 응원을 하고 있었다. 그 청춘들처럼 흥겨운(?) 응원은 하지 못했지만 경기 막바지에 이르러 부끄러움은 잠시 넣어둔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두르고 ‘부산 갈매기’를 떴창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해소했다. 그러나 정작 아쉬웠던 건 바로 응원의 꽃! 응원석(치어리더님들이 계신 바로 그곳)은 오른쪽, 투수와 타자는 왼쪽에 위치한 애매한 좌석을 예매하는 바람에 양쪽을 챙겨보기 쉽지 않았다는 점. 초보의 비애를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다신 실수하지 않으리.



엄숙한 부산을 느끼다

역동적이고 흥이 넘치는 부산을 보았으니 정적이고 엄숙한 부산을 느끼기로 하고 찾아간 곳은 재한 유엔기념공원(UN기념공원). 유엔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성지인 이곳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전몰장병 2,300명이 안장되어 있다. 묘비에 적힌 그분들의 나이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다.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을 그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 땅을 지켜주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묵념을 올렸다. 관리가 잘 된 정원수들과 산책로가 인상적이었던 기념공원은 APEC정상회담 시 각국 정상들도 방문하였다고 한다.

부산에서 기후변화를 체험하다

정책현장탐방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배우고 갈 곳을 들려야 함은 당연하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은 3층 규모로 옥상까지 꼼꼼하게 활용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직접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고 특히,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해 확산시키는 콘텐츠들이 돋보였다. 제주에도 이런 콘텐츠를 벤치마킹하여 체험을 통해 기후변화를 이해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입을 즐겁게 해준 부산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 부산의 명소들도 빼놓을 수 없겠다. 해안에 위치한 용공사는 어찌나 아름다운지 소원을 빌면 바로 앞바다에 용이 승천하며 무슨 소원이든 이루어줄 것 같았다.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 APEC하우스와 제주와는 다른 절경을 가진 부산의 랜드마크인 오륙도와 스카이워크 또한 인상 깊었으며, 오다가다 마주친 광안대교와 광안리 해수욕장, 흡사 뉴욕의 한쪽을 오려서 온 것 같은 높은 고층 빌딩들 또한, 촌놈들의 눈을 휘둥그레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엔 입을 즐겁게 해준 음식들을 되새기며 침을 흘려본다. 시원한 대구탕과 전날의 숙취를 날려준 복국, 봄을 만난 도다리회, 부산의 맛 개금밀면, 사직구장의 치맥! 나열하다 보니 다시 한번, 부산으로 날아가고 싶다!

끝으로 3일간 안전하게 운전해주신 강동훈 주임님, 만담커플로 탐방팀의 분위기를 UP시켜주신 장승민, 문승일 주임님께 감사드리며,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하여 힐링의 기회를 주신 제주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SF와 애니메이션

유년의 어느 날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니 내 방에 원목책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책장 안에는 어린이과학 전집과 한국 전래동화 전집이 빼곡히 들어찬 책장이었다. 나는 과학과 비과학, 사실과 허구가 한 책장에 공존하고 있는 게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이상함이 좋았다. 그날부터 나는 기분에 따라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들며 내 안의 세계를 조금씩 확장해 나갔다. 허공에 부유하는 먼지를 보며 초미세 우주를 상상하고, 해부된 과학 실험용 개구리를 보며 죽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날들이었다.



조희애
애니메이션 작가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SF

청소년이 된 나는 영화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주로 SF 영화를 골라 보기 시작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E.T>와 <미지의와 조우>, 리들리 스콧의 <블레이드 러너>와 <에이리언> 같은 작품은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원작소설을 읽었을 때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다. 나는 그들이 만든 미지의 과학적 상상력과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에 마음을 온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건 농구를 잘하는 미남이 아니라 괴상한 외계생명체가 침을 흘리며 등장하는 SF였다.

사기꾼과 순간이동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애니메이션을 하기로 결심했다. 표현에 제약이 없는 애니메이션이야말로 내가 상상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연출할 수 있는 매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전에 미숙한 내 그림실력부터 키울 필요가 있었다.

나는 미술학원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어느 날 부모님이 나를 호출했다.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애길 들어보고 학원비를 줄지 말지 결정할 거야." 나는 실적 미달 세일즈맨이 된 심정으로 열심히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과장과 허풍, 혹은 일부만 사실인 내용이 교묘히 섞인 점도 더러 있었다. 반쯤 사기꾼이 된 나의 작가적 재능을 발견한 순간이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학원비를 들고, 종로 1가 어느 골목에 화실을 둔 사부를 찾아갔다. 사부는 그림 실력을 단숨에 높일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 달 후, 사부의 화실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순간이동을 할 줄 아는 사기꾼이었다.

픽사 애니메이션 특별 전시회

애니메이션 작가로 일하고 있는 나는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픽사 애니메이션 30주년 특별전>에 다녀왔다. 나보다 먼저 다녀온 지인이 '주말에 가면 관람 지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평일이라 그런지 전시장 안은 한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픽사는 디즈니와 합병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다. 픽사의 모든 작품을 제작·지휘하는 픽사의 수장이자 뛰어난 감독인 존 라세터는 <토이 스토리>, <몬스터 주식회사>, <카> 시리즈의 이야기를 구상할 때 자신의 유년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속도감 있는 연출로 호평을 받은 <카>를 보면 자동차 달러 아들이었던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술과 기술의 결합, 이야기와 과학의 만남

존 라세터는 말했다. “예술은 기술에 도전하고, 기술은 예술에게 영감을 준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애니메이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다. 만약 이야기를 예술의 한 장르로, 과학을 기술의 확장 개념으로 본다면 어떨까.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야기는 과학에 도전하고, 과학은 이야기에게 영감을 준다.” 이것이 바로 SF라는 장르가 세상과 작동하는 방식이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이 이야기가 시작된 유년 시절의 책장을 다시 상상해보았다. 위 칸, 아래 칸으로 나뉘어 꽂혀 있는 과학책과 동화책 사이에는 초미세 우주가 유유히 부유하고 있다. 그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사기꾼 미술 선생은 외계인 캐리커처를 그리며 이따금 개구리처럼 짹짹 웃는다. 뒤를 돌아보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된 내가 “켓! 좋았어. 이번 작품 대박이야!”를 외치며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아직 꿈같은 이야기지만, 이 책장에 꽂힐 다음 순서는 다른 무엇도 아닌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의 DVD가 되길 염원해본다. ■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고윤화 기상청장, 국립현충원 참배(6월 8일)**
고윤화 기상청장과 간부들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자 현충탑에서 분향, 묵념했다.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 **2017년도 9급 신규자 조직적응 능력향상 과정(6월 19일)**
9급 신규자 조직적응 능력향상 과정이 개최되었다. 6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정을 통해 9급 신규자들은 다양한 분야를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예정이다.



● **2017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설명회 개최(6월 15일)**
국민에게 기상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상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소개하는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콘테스트 참가를 독려하고 기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알리기 위촉식(6월 21일~22일)**
제6기 대학생 지역기후변화 알리미의 위촉식을 개최했다. 선발된 알리미는 8월까지 기후변화 과학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변화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Photo News



언론인 기상강좌 개최(6월 22일)

출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기상과학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이번 기상강좌에서는 기상청 예보서비스인 '날씨터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사용법에 대해 자세한 강의가 이어졌다.



지진통보서비스 정책브리핑 개최(6월 26일)

출입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지진통보서비스'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시행했다. 발표시간 단축, 진도 시범서비스, 지진해일 특보구역 세분화 등 현장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 수료식 (6월 12일~23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15개국의 기상청 직원을 대상으로 기상레이더 운영기술을 전수하는 '기상레이더 운영기술 향상과정'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이 개최됐다.



블로그기자단 정책 현장 탐방 개최(6월 29~30일)

기상청 제9기 블로그 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상 정책 현장 탐방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 탐방에서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 고창 표준기상관측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기상과학 지식과 함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독자마당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퀴즈 참여 방법

퀴즈 정답은 7월 25일까지 전자우편 (kmanews@korea.kr)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우편번호·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 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이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제시한 단어에 대한 의미를 참신한 생각으로 뽐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월호의 제시어는 <휴가>입니다.

지난달 우수한 한 문장! <소통>

김은미, 대구
상대방의 말을 넘어 그 마음 속까지 들여다보며, 생각을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것
강미야, 시흥
양자간에 정확한 의사 전달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

이준미, 포천
막힘 없이 술술, 서로가 원하는 "소"망이 한마음으로 "통"하는 것
이현정, 인천
대화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것
김성진, 청주
너와 내가 소리로 통하는 것

QUIZ

지난달 퀴즈 정답

지난달 퀴즈 정답자

1. 다음 중 기상청 봉사동아리 '단비회'에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 것은?

- ① 선풍기 ② 웃음 ③ 더위 ④ 따뜻함

1. ④ 기후난민
2. ③ 시간선택제공무원

최은숙(광주) 서미숙(전주)
오광택(인천) 이춘성(서울)
김남균(하남)

2.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인 이 질병은 무엇일까?

- ① 감기 ② 장염 ③ 식중독 ④ 온열질환

인사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휴직 (고용)	'17. 6.26.	기상청	기상연구관	임은하	정년 퇴직	'17. 6. 30.	기상청	기상사무관	김완희
발령	'17. 6.26.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기상연구관(과장)	주상원	공로 연수	'17. 7. 1.	기상청	기상사무관	이홍렬
면직	'17. 6.29.	항공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청장)	박정규				기술서기관	남영만
정년 퇴직	'17. 6. 30.	기상청	부이사관	임용한				행정사무관	정길은
			기술서기관	김성현				기상사무관	김광훈
			기상사무관	김우철	기상사무관	서광신			
							기상사무관	노성길	
								기상연구관	이종호
					발령	'17. 7. 1.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자료응용과	기상연구관(과장)	이용희

시끌벅적 하늘사랑

최은숙 광주

하늘사랑 6월호에 실린 우리 가족 3대! 파란만장 경주 여행기 소개가 좋았습니다. 요즘 가족들간도 여행을 하기 쉽지 않는데, 이렇게 3대가 함께 우리나라 수학여행 필수코스였던 경주를 방문한 여행기를 통해 참으로 화목한 가족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경주 여행지 소개를 보고 나니 30년 전 꿈 많고 순수했던 고등학교 학창시절 수학여행이 떠올라서 잠시 추억속에 젖어 오랫동안 빛바랜 앨범을 들여다보면서 회상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경주에 발생한 지진으로 경주여행객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유적지와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경주여행을 많이 하여서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번 여름휴가때 어디를 다녀와야 고민 중이었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경주로 정했습니다.

이춘성 서울

기후난민에 대한 기사를 보며 어쩌면 우리의 미래에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기후가 바뀌고 동식물의 분포가 달라진다는 정도로만 인식하기 쉬운 기후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기후난민문제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지는 좋은 기사로 벌써 찌는 듯한 더위에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이 바로 우리도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음을 모두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광택 인천

언젠가 기후 변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하얀 북극곰과 붉은 곰의 서식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호 블로그 기사단께서 쓴 '지구온난화가 낳은 또 다른 아픔, 기후난민' 코너를 보니 전쟁이나 인권이 아닌 기후온난화로 인해 매년 2,150만 명의 사람들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니 이제 기후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닌 당장 우리에게 닥친 현실의 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서미숙 전주

기상청 6월호 열린마당 돌!에 실린 아재들의 문화체험 추억의 7번 국도 기사를 읽는 내내 저도 조금이나마 남편의 마음을 헤아릴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20년이 넘도록 일하면서 가정과 직장생활에 많이 지쳐있을 텐데도 가장으로 또 직장에선 상사로 열심히 우리 남편도 아무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회가 되면 혼자만의 여행을 보내주고 싶네요.

아재들만의 온전한 여행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찾은 여행이 참 추억에 남았을 것 같고, 성류굴과 망양정에서의 갈라진 석주(통일기원탑)을 보면서 과거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진업무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가 되었다는 기사를 읽고 역쉬!기상청의 아재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몸속에 베어있는 직업병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 가쁘게 앞만 보고 살아온 모든 아재들이야말로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여름의 예고편

눅눅함 밤,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다보면
어느새 달아난 잠과 함께 쏟아지는 기억들

꿍꿍한 이불을 돌돌말고
기억 속으로 말려들어가다 보면
뒤척이던 꿈 속에도 빗물이 가득하다

가장 우울한 계절이라는 장마철,
이제 막 여름의 예고편이 시작되고 있었다.

글: 조아라

사진: 김효중, <마천루에서 만난 스쿨>, 2016 기상기후사진전 입선



제12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공모

기상정보를 기업(관)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관) 또는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기상산업 신사업·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상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2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자격

기상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관) 및 개인

공모분야

I 기상정보 활용 부문

- 기상정보를 기업(관)경영에 활용하여 재해예방 및 경영을 혁신한 경우

II 기상산업 진흥 부문

- 기상·기후 분야의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우수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III 아이디어 제안 부문

- 기상산업 신규서비스 또는 신사업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정책 등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4. 13.(목) ~ 8. 31.(목) 16: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우편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mipa.or.kr) 참조

시상내역 총 15점(시상금 21백만원)

구분	등급	훈격	시상금
기상정보 활용	대상(1)	국무총리상	500만원
	금상(1)	환경부장관상	300만원
	은상(2)	기상청장상	각 100만원
	동상(2)	기상청장상	각 50만원
기상산업 진흥	환경부장관상(1)	환경부장관상	300만원
	기상청장상(2)	기상청장상	각 100만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	각 50만원
아이디어 제안	최우수(1)	기상청장상	200만원
	우수(1)	기상청장상	100만원
	장려(2)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상	각 5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육성실 Tel. 070-5003-5233



2023년,

세계 캠프버리!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유치도끼를 기원합니다.



전세계 5만명의 청소년이
모여 만드는 꿈의 한마당

